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감사의 하모니! 롬 8장

[친밀하심을 따라 ②]- 롬8 암송 후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며 지낸 2021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주신 말씀으로 일상의 시련을 이겨 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12월 11일, 양재 BEE는 Zoom으로 각 사람 2~3절씩, 함께 8장을 암송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BEE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1절 [정대서 장로] 만 40세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결코 과거의 허물로 인한 **정죄**가 없으며 나의 자유의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동행할 것이다.

3절 [김민정 자매] 육아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는 **육신**의 죄성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부족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함을 이를 위해 예배 시간을 더욱 갖기를 결단해본다.

5절 [김찬주 권사] 아는 내용이지만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과 지식, 경험으로 포장되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선택만을 할 것이다.

7절 [홍경선 권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일깨우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다.

9절 [정은실 선교사] 박 선교사와 콜롬비아 리오아차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항상 나누며 기도했기에 2022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았다.

11절 [원종덕 집사] 딸 지선의 죽어가는 몸을 **살리신** 이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지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내가 바로 죽을 몸인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다.

13절 [박은신 권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저의 가정에 딸 지선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해가 더 할수록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15절 [조혜경 권사] 나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인쳐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한다.

17절 [홍호희 목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여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19절 [임진섭 선교사]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피조물**도 회복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태국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한다.

20절 [이동희 권사] 로마서를 암송하며 제일 놀라운 대목이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죄지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과 동물까지도 종노릇 한데서 **해방**을 바란다는 것을 깨달은 후, 길에 핀 풀도 나무도 꽃도 다시 보이고 사람들의 죄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연이 보인다.

22절 [최현성 선교사]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 날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의 소망을 품고 비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보며 **탄식**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리라 결단한다.

24절 [이경숙 권사] 우상 단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성하여 많은 재앙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 혹여나 낙망할까 나를 염려하시며 모든 문제를 기도만 하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나를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25절 [윤아름 집사] **탄식**이란 단어가 마음에 남는다. 내 삶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둠의 끝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버티는 삶에서 소망하는 삶으로 친히 **탄식**하고 간구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한다.

27절 [박차홍 총무] 하나님과 성령이 서로 안다는 의미를 온몸으로 알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을 보았다. 양재 BEE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29절 [이상도 집사] 나는 차남이지만 아버지의 축산분야를 이어받아 **만아들**이 되게 하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주신 말씀은 감동! 감동~! 그 자체다.

31-32절 [박부경 선교사]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나는 이제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가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풍성한 하나님 사랑 안에 앞으로도 살게 하소서.

33절 [오수제 집사] 코로나 시대에 장례를 치르며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되지 못한 가족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은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이다.

35절 [정주영 자매]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 **도살당할 양** 같이 여감을 받는 날들이 자꾸 닥쳐와 힘들었으나 죄가 없어도 나를 대신해 도살당할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도살당할 양 같은 여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며 또한 **넉넉히** 이길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38-39절 [이혜정 권사] 4년 전 5자매 중 가장 영특하고 착한 동생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쇼크로 아버지가 2년 후 돌아가시고, 지금은 엄마의 치매 우울증으로 사망의 그림자가 넘실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BEE Korea 가족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취재 및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선교지  우간다

[음악과 춤- 비팔라(Bigwala)]

우간다의 바소가(Basoga)족의 문화적 관습인 비팔라는 대관식이나 장례식 등 왕실 행사와 최근에는 사교적 행사에서 연행되고 있다. 호켓(hocket) 기법의 5개 이상의 단조로운 박나팔(gourd trumpet)의 멜로디와 특정한 춤과 함께 연주된다. 하나의 나팔 연주로 시작하여 나머지 나팔이 호응하고, 이어서 등장한 가수 겸 무용수는 5명의 고수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돌면서 손을 들고 허리를 부드럽게 흔든다. 절정에 이르러 여성 관객들이 소리 내어 울부짖는다. 가사는 바소가족의 역사로 부족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재확인하며, 영도력, 결혼 문제, 용인 가능한 사회 규범이나 관습 등의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비팔라는 바소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제작 및 연행이 가능한 기예능보유자의 전승과 재정적인 문제로 그 존폐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긴급 보호 목록으로 지정되어있다.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2022년 새로운 기도 테이블로 모이는 BEE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와 은혜의 나눔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